



서경대신문

1955년 5월 23일 창간
발행인·최영철 / 주간·방미영
편집장·이예은 / 인쇄인·말해기희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02713)
전화·940-7257 / www.skpress.org

사회 >> 3면

논란의 주 69시간 근로 시대 역행적 발상인가?

기획 >> 4면

단돈 만 원으로 알찬 하루를 보내는 방법

현장르포 >> 5면

국내 동물원의 현주소는?

제569호

2023년 5월 16일(화)

서경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시행 학교 선정..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

서경대학교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관내 지자체인 성북구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본교 이외에도 성북구에 속한 8개의 대학 ▲ 고려대 ▲ 국민대 ▲ 동덕여대 ▲ 성신여대 ▲ 한성대가 천원의 아침밥 시행 학교에 선정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쌀 소비를 늘리고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

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만 8,200여명의 재학생이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한 끼당 학생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 1,000원, 성북구청 1,000원, 대학이 1,500원을 각각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된다. 천원의 아침밥은 교내 청운관 1층에서 진행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청운관 1층 학생 식당 앞 키오스크에서 식권을 발급 받아 음식을 수령할 때 제출하면 된다. 식권은 1인 1매로 당일에만 사

용 가능하다. 시행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약 3시간이다. 단, 일일 선착순 200명만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천원의 아침밥 메뉴는 '라면'과 '한식' 두 가지로 나뉜다. 라면의 경우 우 총 3종류가 있으며 '만두라면', '떡라면', '해장라면' 등의 순으로 요일이 돌아가며 제공된다. 한식은 매달 초 사전 공지된 식단표에 따라 메뉴가 제공된다. 보통 국, 밥, 메인 반찬 2가지가 제공되는데 김치, 콩나

물, 단무지는 매일 고정되어 제공된다. 매일 아침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청운관 식당운영체제 측 관계자는 "정성껏 준비한 만큼 학생들도 맛있게 즐기길 바라며,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00원의 아침밥을 이용한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김나연 학우(23)는 "교시 수업이 있는 날엔 아침을 못 먹어서 점심때까지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식비 부담도 줄고 하루의 시작이 든든하다고 느꼈다"며 이용 소감을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전국적으로 계속

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학생들 사이 높은 만족도가 그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145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대학생 및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시행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naver.com)

5월2일 OPEN 천원의아침밥 서경대학교 청운관 1인 1매 당일 사용

천원의아침밥

물일어들이 아침밥 먹고 기운 내자 -

- 이용시간: 7:30am ~ 10:30am
- 오시는길: 청운관 1층 학생식당
- 이용방법: 청운관 1층 키오스크에서 식권 발급
- 이용조건: 일일 선착순 200명

이예은 기자 (kosoy@naver.com)

서경대, '2023 해외 취업 연수사업 대학 연합 과정' 신규 선정



서경대학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3 해외 취업 연수사업 대학 연합 과정'에 신규 선정됐다. '해외취업연수사업'이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국내에 개설하여 맞춤형 연수 과정 후 해외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진대, 덕성여대와 성공적인 해외 취업 모델을 구축한 삼육대는 서경대를 사업단에 포함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대학 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경대 등 4개 대학은 '글로벌 이노비즈(Global INNO-BIZ) 서울 북부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미국 지역의 직무 수요를 기반

으로 서경대학교 1개 과정(글로벌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삼육대학교 2개 과정(글로벌 e-Biz 전문가 양성 과정,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양성 과정), 대진대학교 1개 과정(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과정), 덕성여자대학교 1개 과정(스마트 무역, 물류 & 회계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총 5개 연수 과정(100명)을 개설해 직무 및 어학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7일 취창업지원센터에서는 많은 학생에게 해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2023년도 해외 취업 연수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연수생으로 선발될 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학생의 항공비 및 체재비 부담

해소를 위해 교내 장학금(최대 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을 포함해 최대 15학점 이 인정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향후 예비자 과정과 더불어 참여율에 따라 본 과정 학생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된다.

[취창업지원센터 인터뷰] - 이상협 선생님

Q. '해외 취업 연수사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희 학교의 국내 취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해외 취업률은 저조합니다. 그러한 와중 감사하게도 삼육대로부터, '해외 취업 연수사

업' 대학 연합과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을 위한 직무능력과 어학 능력 향상 등 여러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해외 취업 연수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Q. 해외 취업 연수사업 이외에도 앞으로 계획된 다른 프로그램도 있나요?

A. 네, '해외 취업 연수사업'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진행되는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경대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궁극적으로는 미국 현지에서 요구하는 교육목표를 연구하여 각 대학과 인적, 물적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4개 대학(삼육대, 서경대, 대진대, 덕성여대)들이 질 좋은 교류를 통해 약점을 보강하고 여러 방면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

신록의 계절, 민주주의를 꽃피우다

서경대 단과대별 학생회와 자치기구 '중간고사 간식 지원 이벤트' 통한 온정 나눠..

서경대학교 단과대별 학생회와 자치기구가 '중간고사 간식 지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본 행사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소와 시간이 사전 공지됐다. 단과대 학생회로는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이공대학 학생회가 중간고사 간식 지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제51대 총학생회 '위로'와 총동아리연합회 '든든' 또한 중간고사로 지쳐 있는 학우들을 위한 간식 지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제33대 인문과학대학 학생회 Onu는 '간식 지원'과 '함성키트 지원'을 진행했다.

간식 지원에선 닭강정과 컵라면을, 함성키트 지원에선 초코바, 에너지바, 핫식스, 일회용 칫솔 치약 세트 등을 지급했다. 본 행사는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진행됐다.

제25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오늘'도 '간식 지원'과 '아간 간식 지원'을 함께 진행했다. 낮 간식 지원

에서는 B&C 롤팝과 롤라를 아간 간식 지원에서는 트릭스, 멘토스, 콘푸라이트바, 핫식스를 지원했다. '오늘' 사회과학대 간식 지원 또한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진행됐다.

제32대 이공대학 학생회 '바다 무적이공대'는 싸이버거 단과과 롤라 125ml 100개를 지원했다. 바다 무적이공대의 간식 지원도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진행됐다.

제51대 총학생회 '위로'는 포카리스웨트, 스왕칠, 허리보, 트릭스, 마이유, 소세지, 키드오, 율터저스 등 간식 세트 400개를 지원했다. 단과대학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위로' 총학생회 간식지원 또한 총학생회비 납부자만 수령할 수 있었다.

제39대 총동아리연합회인 '든든'은 봉구스 밥버거와 피크닉 80개를 준비했다. 총동아리연합회의 간식 지원은 단과대학 학생회, 총학생회와 달리 교내 동아리에 소속된 동아

리원이라면 누구나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중간고사 간식 지원 이벤트를 기점으로 다가올 기말고사 간식 지원 이벤트와 다양한 행사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e@naver.com)



▲ 출처: 든든 총동아리연합회



▲ 출처: 위로 총학생회

'위로' 총학생회 상반기 결산... 어떤 사업 진행했나?

어느덧 1학기가 시작되지 두 달이 지났다. 팬데믹이 호전됨에 따라 작년과 달리 신입생 환영회, 해오름제 등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곧 또 다른 행사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로 총학생회(이하 위로 총학)가 그간 진행한 사업들을 돌아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는 '세계 최강 시간표 대회'와 '어쩔 고딩 저쩔 사진' 이벤트다. 시간표 대회는 3월 초에 진행한 것으로, 학우들이 뽐낸 다양한 시간표 중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을 투표로 선정한 상품을 전달하는 행사였다. 다음으로 '어쩔 고딩 저쩔 사진'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이하여 진행한 이벤트로, 본인의 교복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무작위로 추첨

해 상품을 지급하는 행사였다. 두 번째는 '재미'를 목적으로 학우들과 소통하며 진행한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위로 총학의 재치를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비즈코리아와 진행한 Adobe 공동구매로, 기존 구매보다 28% 저렴하게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예술대의 경우 Adobe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학우가 다수이므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서울미술관 10주년 기념전 이벤트, 공연 기회사 지안 컴퍼니와 준비한 연극 할인 혜택이다. 서울미술관 기념전 이벤트는 현재 종료됐지만, 연극 할인 혜택은 24년 3월 1일까지로 학생증 제시 시 7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예약할 수 있다. 두 사업은 학우들의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준비한 위로 총학의 대외협력 사업이다.

네 번째는 OFIC 대학연합 정기평가 응시료 할인 혜택으로, 연 1회에 한해 기존 응시료보다 18% 할인된 금액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기업들의 OFIC 평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학우들의 제휴 요구가 건의되곤 했는데, 이를 고려해 진행된 사업이다.

다섯 번째는 신입생 기념품과 중간고사 간식지원 사업이다. 23학번 새내기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제공한 신입생 기념품은 2023년 달력, 스프링 노트, 3색 볼펜, USB, 파워프렌즈 스티커, 취창업지원센터 소

개집, 진로심리상담센터 소개집으로 구성됐다. 배부는 각 학과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다음으로 중간고사 간식지원은 4월 19일에 진행된 사업으로, 총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북악관 앞에서 진행했다.

마지막은 성북구 지원 하에 진행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다. 타 학교에서 진행해 많은 관심이 있었던 해당 사업은 서경대에서는 5월 2일부터 시작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청운관 1층 학생식당에서 운영되며, 일일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된다.

위로 총학에서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임다빈 학우(경영 22)는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학우분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활발한 대학 생활을 경

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학우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사업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며 "계속해서 학우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기획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로 총학생회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위로 총학의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길 바란다.

이준은 기자 (20eun00@naver.com)



▲ 출처: 위로 총학생회

'위로' 총학생회 2023학년도 신입생 기념품 배부 현황리에 마무리

지난 4월 2023학년도 신입생 기념품이 배부됐다. 제51대 '위로' 총학생회가 기획, 준비한 이번 행사는 총 1633명의 신입생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념품은 ▲2023년 달력 ▲스프링 노트 ▲3색 볼펜 ▲USB 3.0 32GB ▲파워 프렌즈 스티커 ▲취창업지원센터 소개집 ▲진로심리상담센터 소개집 등 총 7개의 물품이 지급됐다.

달력에는 2023년 주요 학사 일정과 행사 등이 표시돼 있어 신입생 학우들의 편의를 더했다. 이외에도 3

색 볼펜과 USB에는 서경대학교 공식 로고가 적혀있어 학우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신입생 기념품 키트에는 취창업지원센터, 진로심리상담센터 소개집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신입생 학우들은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알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성황리에 기념품 배부를 마친 '위로' 총학생회는 "다시 한번 신입생 학우들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서경대학교에서의 좋은 추억

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행사를 진행한 소감을 밝혔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위로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sku_51st_wiro)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e@naver.com)



한 눈에 보는 이슈

<p>정치</p> <p>논란의 주 69시간 근로... 시대 역행적 발상인가?</p>	<p>경제</p> <p>'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시행..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도움 될까?</p>	<p>사회</p> <p>소아과 폐과 선언... 진료 대란 현실화 될까?</p>	<p>문화</p> <p>'검정 고무신' 비극으로 보는 만화계 불공정 계약의 내막</p>	<p>연예</p> <p>아이돌 가수의 잇따른 비극적인 선택에... 연예계 '충격'</p>	<p>스포츠</p> <p>손흥민 100호골 역대 34번째... '아시아 최초'</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논란의 주 69시간 근로 시대 역행적 발상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0년간 유지된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지향하는 주 69시간 근로 제도로 개편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선택권'은 기존 1주 단위의 연장 근로 대신 근로자가 직접 관리 단위를 선택하게 하여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권'은 3중 건강 보호 장치 불충 해 유연 근로제에 제한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휴식권'은 장시간 근로와 일명 '공짜야근'을 야기하는 포괄 임금 오남용을 근절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기존의 최대 주 60시간 근로 제한 조차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는 실상에 주 69시간 근로는 의학

수박에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최근 4년 뇌 심혈관질환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 60시간을 일한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가 93.4%로, 과로 사해를 만드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여 30%까지 떨어지고, 노동 시간 제도 개편안과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규탄을 위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 시간 개편방안 설문조사 등 두 달간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주 69시간 근로 정책이 비판 받는 것은 아니다. 장기 휴가가 눈치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다양한 근로 시간을 바탕으

로 여성과 청년층, 노인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이란 의견 또한 존재한다.

주 69시간 근로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언급하며 주목받게 된 주 4일 근로제는 주 69시간 근로제와는 반대되는 정책이다.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만, 주당 노동 시간을 기존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주 4일 근로제의 목표는 일과 삶의 즉 '워라밸'의 존중이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이 제도를 활발히 도입 중이다.

영국에서 7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88%의 기업들이 성공적 평가를 하여 정책의 전망 또한 검증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영업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5000만 유로(약 680억

원)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시민 인터뷰]
- 김신희 (31세) / 이영림 (28세)

Q.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김신희). 기업을 생각하면 늘리는 게 좋겠지만, 근로자에게 너무 많은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만족하며 일을 해야 결국 기업에도 이득이 되니까요.

A(이영림).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한 이유는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노동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Q.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4일 근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김신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므로,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A(이영림). 주 4일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자에게 좋을지 몰라도 기업엔 막대한 손실이 생깁니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국가에도 큰 위협이 되므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이 되지 못하는 이상, 쉽사리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130@skuniv.ac.kr)



소아과 폐과 선언... 진료 대란 현실화 될까?

지난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다.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수입 감소다. 타과의 경우 MRI나 CT와 같은 검사 혹은 처치와 수술 등을 통해 비급여 수입을 얻고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진료비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30년째 동결된 진료비로 인해 지난 10년간 소청과의사들의 수입 25%가 줄었으며, 다른 수입원이던 예방접종 사업 역시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됨으로써 기존의 40%만 받도록 강제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아예 과 기피 현상이 발생해 진료할 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전국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률은 15.9%로 최저치를 찍었다고 한다. [출처: 머니투데이] 의료공백으로 인해 '출생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지원하는 전공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의료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여기서 짚어줘야 할 점이 있다. 의사회가 언급한 '폐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 자체가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 폐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아닌 정부의 권한이다. 전문과목 신설과 폐지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과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앞으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양성은 계속될 것이다. [출처: 헬스조선]

따라서 전국의 모든 소아청소년과 과 문을 닫진 않는다. 폐과를 선언한 의사회는 주로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의로 구성돼 있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2, 3차 의료기관과는 관련이 없다. 실제로 대한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을 끝까지 사수하며, 소아청소년과 국민의 건강권 유지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서울대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새내기 전문의 14명이 작성한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는 제목의 배너는 보호자들에게 안심과 감동을 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와의 고달픈 현실을 보여준, 그러나 국민들을 불모로 삼는다는 비판도 있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시민 인터뷰]
- 김두현 (36세)

Q.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격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서울대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새내기 전문의 14명이 작성한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이라는 제목의 배너는 보호자들에게 안심과 감동을 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와의 고달픈 현실을 보여준, 그러나 국민들을 불모로 삼는다는 비판도 있었던

실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Q.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어떤 지원, 혹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건 없이 의료수가를 높이는 정책은 의료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가를 높이되 질병청과 협의하여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소아과를 비롯해 아동과 관련한 복지기관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기자
(20eun00@naver.com)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시행..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도움 될까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전에 비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이러한 상황에 어려움을 대하는 것이 있다. 바로 허위신고로 통해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다. 그간 실거래가 신고 가격이 시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허위신고가 더러 발생해 왔다. 허위신고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하거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지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외에도 '빌라왕' 사건과 같은 부동산 사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은 고작 과태료 3,000만 원에 불과했다.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으로 수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한층 강해진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집값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를 해 호가를 높인 후 단기간 내 해제 신고를 하는 등의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에 대해 경찰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거래가 거짓 신고 또한 과태료 상한액이 올라갔다. 시세 조작이나 탈세, 대환대출 상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실제 거래가격과 달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래의 과태료 상한액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100분의 10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20% 이상인 경우 취

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의 다수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거래 등 집값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조사를 착수, 2023년 3월 20일부터 6월까지 집중 조사를 통해 허위거래 신고에 증후기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인터뷰]
- 오원주 (21/대학생)

Q. 이사를 준비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었나요?

예산에 맞는 집 중에서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차안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학생이고, 집에서 지원받는 것이다 보니 돈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Q. 개정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을 구하면서 혼자 알아보는 것에는 제약도 많고 한계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할 때도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할지 고민도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도 이전보다는 훨씬 안심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409@naver.com)

'검정 고무신' 비극으로 보는 만화계 불공정 계약의 내막



요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란에 등장하였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화가 시작되고 검정 고무신의 캐릭터가 세겨진 상품들이 판매되는 동안, 원작자 이우영은 사업화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심지어 2019년에는 원작 만화를 협의 없이 그랬다는 이유로 형사연속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작자의 협의 없이 2차 저작물에 대한 제품 사업화를 진행하는 일은 만화계에서 흔하게 이루어진다. 창작자들은 캐릭터 사업화를 통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계약에 관한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시 법률 용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 가며 협상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15년간 '검정 고무신'의 사업화 개수는 77개가 넘지만, 이우영 작가가 받은 금액은 고작 1200만원에 불과했다. 동생 이우진 작가는 "어떤 이들은 작가에게 돈을 제대로 안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저는 만화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싶은 것이다. 만화가에게 작품은 자신의 목숨과도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라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최근 논란된 '검정 고무신' 사건과 관련한 한 학우의 의견

들어온 인터뷰다.

[학우 인터뷰]
- 익명 (서경대학교 이동학과 20학번)

Q. 검정 고무신 작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검정 고무신 작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 작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상당히 놀랐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고 원래 심한 지병을 앓고 계셨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만화업계의 저작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창작 분야의 저작권 문제는 과거부터 많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음악 표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데 디자인이나 만화업계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창작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작가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 물가가 치솟는 현대사회 속, 단돈 만 원으로 알찬 하루를 보내는 방법

‘만 원의 행복 챌린지’

최근 중저가 커피 브랜드나 자체 상표 제품들까지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가성비'의 상징이었던 PB상품까지 잇따라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0.4%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은 통계상 4%로 둔화됐다고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머니 상황이 여의치 않을 학우들을 위해 기획부에서 '만 원의 행복' 특집 기사를 준비했다. 서경대학교 내, 혹은 서경대 주변에서 단돈 만 원으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기사를 정독해보길 바란다.

효율적인 학교생활과 대학생의 지갑 사정을 고려한, 서경대 아랫길 경로



필자는 교내의 원격수업 청취를 위한 강의실을 이용했다. 원격 수업 청취실은 복약관과 해인관 2층에 여럿 위치해 있는데, 강의가 진행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해인관의 강의실은 개인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간 대여'의 개념이다. 반면 복약관에서는 이어폰과 마이크를 별도로 대여하지 않지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개인 노트북이 없는 학우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평소 학교 근처 카페를 이용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내의 공간을 활용하니 금전적으로도, 이동하는 통선도 효율적이다.

열심히 공부한 후에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에 가 본다. 그러나 무섭게 치솟은 물가로 인해 편의점 도시락도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 요즘이다.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엔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느낌이고, 그렇다고 해서 배번 학식을 먹기에는 메뉴가 비슷하기에 다소 물릴 때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학교 아래 길목에 위치해 있는 일본식 카페 식당 '고씨네'에 방문했다.

원조 메뉴인 돈가스 카레는 6,500원으로, 최근 들어 8천원 선을 웃도는 국밥 한 그릇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다. 그외 고로케 카레, 닭·새우튀김 카레, 소고기 카레, 바삭 우동도 역시 같은 가격이다. 심지어 바삭 카레와 파프리카 카레는 그보다 500원 더 저렴한 6,000원이다. 고씨네가 유명한 것은 이처럼 가격이 저렴한 이유도 있지만,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밥과 카레가 리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 가격을 보고는 그만큼 양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 학우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리필이 가능하기에 누구나 든든히 식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음료 가격이 저렴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그곳들은 보통 공간이 협소하거나 사람이 많아 소란스럽고, 포장용 해갈 때에만 저렴한 경우가 있다. 필자는 저

나도 모르는 새에 소멸되고 있는 혜택들과 포인트... '학생증'과 '통신사'

최근 국내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식료품부터 생활용품, 주택까지 모든 제품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에 필자는 '만 원의 행복 챌린지'에 참여하여, 현대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한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꽤나 출출하다. 만 원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점심은 학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학식을 운영하는 건물은 한림관, 청운관, 복약관이 있다. 이중 필자는 복약관 학식을 추천한다. 메뉴들이 단조롭다는 말이 있지만, 단연 맛은 최고였다. 복약관 학식의 평균 가격대는 5~6,000원 대이며, 기호에 따라 김밥과 라면도 추가할 수 있다.

점심을 해결하니, 잠이 몰려온다. 최근 국내 카페들의 커피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됐다. 이에 필자는 학생증을 이용한 학생 할인을 이용하려 한다. 서경대학교는 신한은행과 상호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학생증을 발급하면, 애플리케이션 신한 솔(SOL)을 통해 여러 기프티콘 및 할인권이 주어진다. 특히 처음 발급 시에는 '메가커피'의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두 장이 주어진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2~3,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꽤나 훌륭한 방법이다. 학교에서 가까운 '메가커피'는 두 곳이 있는데, 도보로 1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았다. 학생증은 앞서 언급한 애플리케이션 '신한(솔)'과 유당관 3층 신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페인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수업이 종료됐다. 필자는 이번 '만 원의 행복 챌린지'의 마무리를 영화관으로 자여볼까 한다. 작년부터 모든 영화관의 티켓 가격이 인상되어 영화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요즘, 필자는 통신사 요금 혜택을 이용하려 한다. 통신사별로 요금 사용 등급에 따라 영화관 할인이거나 무료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전체 포인트 중 작년 한 해 사용된 포인트는 약



40%에 불과하다. 그 결과, 작년에만 4700억원 가량의 포인트가 소멸됐다고 한다. 필자의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요금 혜택으로는 VIP 고객, 연 12회 무료 예매와 T 멤버십 회원 4,000원 할인이 있다. 또한 여러 간식들의 할인권도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 할인권과 혜택들로 만 원의 행복 챌린지를 보내냈다. 실사용처는 점심과 영화관에서의 간식뿐이었지만 꽤나 다채롭게 챌린지를 진행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없어지고 있는 여러 포인트들을 잘 확인해 보고 높아진 물가에 대해 적절히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길 응원한다.

교내에서 보내보는 만원의 행복 챌린지... '한림관'과 'SP', 그리고 '학술정보관'



편의점에 가면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전에는 생각 없이 구매하던 사소한 간식들도 비싸져 저절로 소비를 절제하게 된다. 이런 높은 물가 때문에 MZ세대 사이에서는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여 절약하는 '무 지출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한다. 삼각김밥에 인접하여 주변에 빈화기가 없고 버스를 타고 높이 올라와야 하는 학교의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의 서경대 학우들은 배달이나 학식 등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또한 아직 학교 주변 지리와 맛집을 잘 알지 못하는 세태의 입장으로 만원으로 서경대 내에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만 원의 행복 챌린지'를 체험해보았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어느 구내식당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 한식, 양식, 특식의 가격이 5,5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내가 원하는 반찬을 직접 골라 담을 수 있는 한림관으로 결정했다. 좀 더 푸짐한 식사가 가능하고, 반찬이 부족할 경우 더 담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당 내부가 가장 넓고 청운관, 복약관의 구내식당과 다르게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서경대 캠퍼스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후 수업이 시작하기 전 공간 시간에는 폭풍의 언덕 중간에 위치한 대일관 외부의 카페 SP에 갔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는 2,200원이고 샐러드 시럽 추가는 800원, 사이즈 업은 1,000원이 추가된다. 이 외의 음료들은 모두 3,500원 이상이다. 교내 카페 역시 물가 인상의 여파로 전체적인 가격을 올렸다. 음료의 가격이 학식 가격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교내 곳곳에 위치한 자판기를

서경대 근처의 숨은 덮밥 맛집 '태준식탁'과 아늑한 '솔샘로 58' 카페

공강 시간에 배는 고프지만 학식은 당기지 않고, 학교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싶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가 오른 요즘 외부 식당을 가가에는 부담스러워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다. 이럴 때만 원 이내의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끼니를 때우고, 디저트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학교 근처의 공간들을 소개하려 한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일식당 '태준식탁'이다. 유당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가 뒤쪽 언덕을 쪽 내려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매장 내부는 아담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긴다. 로스캐스, 유케동, 규동주 메뉴인 일본식 덮밥집으로, 덮밥이 야외에 우동이나 치킨 가라야게와 같은 사이드 메뉴도 시킬 수 있다. 덮밥 메뉴의 평균 가격대는 7~8,000원대이며, 우동은 6,000원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가 이곳에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규동'이다. 불맛을 입힌 소고기가 올려져 있는 덮밥으로, 특제 소스에 버무려 달콤하고 호불호 갈리지 않을 맛이다. 사케, 크림 생맥주 등 다양한 술도 팔기 때문에 가벼운 맥주 한 잔이 당길 때도 오기 좋은 장소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방문 시 시간 여유를 두고 와야 한다는 점이다. 1인 식당이라 음식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카페 '솔샘로 58'이다. 태준식탁에서 걸어서 단 2분 거리로,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기 좋은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다. 내부는 예이지 톤의 인테리어로 깔끔한 느낌을 주고, 내부 좌석이 많아 여유롭다. 큰 창가 자리도 있어 개인 업무를 보며 혼자서 여유를 즐기기도 좋다.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단돈 33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아인슈페너와 크림 라떼 등 커피 종류가 다양하며 대부분 5000원 이내이다. 필자는 산미 없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주문 시 산미 있는 원두와 없는 원두 중 취향껏 고를 수 있어 좋았다. 마들렌, 파운드케이크, 쿠키 등 다양한 디저트도 4000원 이내의 부담 없는 가격이다. 메뉴 가격에도 저렴하며 조용하고 편한 분위기의 카페라, 공간에 둘러 '카공' 하기도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학교 근처에서 저렴하게 식사와 디저트를 해결할 수 있는 숨은 루트를 소개해 보았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려면 가까운 언덕을 올라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만 원으로 식사와 디저트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요즘, 찾기 힘든 저렴하고 퀄리티 좋은 곳들이라 꼭 소개해 주고 싶었다. 학교 근처 유명 음식점들을 모두 가봐서 갈 곳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숨은 맛집'들을 꼭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내 물가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식료품 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전기 요

금 인상 등 에너지 가격 상승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기존에 지출했던 금액으로는 더 이상 같은 물건을 살 수 없게 됐고, 점점 더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출을 관리하고 대체품을 찾는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물가 상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자가 소비 습관을 바꾸고 절약하는 노력을 하

며, 가격 대비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번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번 물가 상승이 장기적인 경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소비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물학대” vs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원 존폐, 세계는 지금

7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숨 쉬는 곳.. ‘서울어린이대공원’

사람들은 관광상품 혹은 데이트와 가족의 단란한 나들이를 위해 동물원을 찾는다. 동물원(動物園)은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을 일정 구역에서 사육하면서 종 보존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고 연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운영하는 곳은 결국 수익이 동물원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인간의 ‘관람’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그로 인해 동물원의 동물들은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구경 당한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의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 밝혀지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논쟁이 재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월 16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난징의 진뉴 후 사파리 공원에서 촬영된 사자 알라에 대해 보도했다. 뼈가 살갓속에 흰히 내다보이는 알라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에 확산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물론 세계 많은 이들이 해당 동물원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동물원 측은 해명을 내놓았지만 뼈째 마른 알라의 모습에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웠다.

한편 개봉을 앞둔 영화 ‘인어공주’의 주인공인 미국 배우 할리 베일리는 동물 학대로 악명 높은 태국 방콕의 사파리 월드 동물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 대중들의 뭉클함을 받았다. SNS에서 곧잘 보이는 이곳에서는 훈련된 오랑우탄이 여성을 뒤에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움켜쥐는 영상이 촬영된다. 태국의 사파리 워드는 수년간 국제 감시를 받아왔을 만큼 가혹한 훈련과 사육이 행해지고 있어서 더욱 공분을 샀다.

반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은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사육하고 있다. 여기서는 살아 있는 동물들을 만져보는 대신 죽은 거북이의 등껍질을 만져보게 한다. 또한 동물 털을 안내문 아래 비치해 동물들을 직접 만지지 않아도 그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세계적으로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는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은, 지난 해 9월 12일 서울신문과 단독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동물원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한국에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체험형 동물원, 동물 카페, 농장이 성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구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족관에 물고래를 가두는 것처럼 동물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놀이구로 여기는 일은 잔인합니다.”(허락) [출처: 서울신문]

점차 동물권 인식 및 담론이 강화되는 만큼 제인 구달의 이러한 인터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를 시사한다.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원의 동물들은 간해 지낸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했다. 지난날 벌어졌던 ‘세로’의 탈출 소동은 동물원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논의하는 계기로 촉발됐다.

알라에서는 동물원의 존속에 대해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맞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한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동물원 존폐의 기로에 선 현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 고려해볼 시점이다.



▲ 사진출처 : 샌프란시스코 동물원



▲ 사진출처 :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체 보호’ VS ‘동물 학대’, 국내 동물원의 현주소는?

현장르포를 작성하기 전 취재를 위해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방문했다. 입구로부터 몇 걸음 지나지 않아 ‘왈라비’가 취재부를 반겨주었다. 주로 호수에 서식하는 왈라비는 캥거루과에 속한다. 넓은 대지를 뛰어다녀야 할 왈라비는 허용된 공간 안에 수십 분간 제자리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왈라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 국내에서 동물원에 관련된 잡음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 ‘동물원 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맨 상단에 ‘동물원 폐지’가 뜰 정도다. 일부는 동물원이 ‘개체 보존’ 및 ‘교육적인 측면’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라 말한다. 그러나 개체 보존을 위해 동물의 자유를 앗아가는 행위가 과연 옳다고 믿는가? 하는 우려를 철회 날아야 할 새들이 천장이 꼭 막힌 철장 안에서 살아가고, 하루에도 수백 명 앞에 ‘전시’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이다. 이제는 동물원이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때다. ‘동물’과 ‘인간’ 우리 모두의 공생을 위해서 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서경대 취재부가 나섰다. 서경대 신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동물원의 현 주소를 살펴보자.

실외 전시에서 한수 더 뜬 실내체험형 동물원

2019년 7월, 실내 체험동물원인 ‘주렁주렁’ 영등포점 개장으로 인해 동물원 단체들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가 있었다. 당시 질병 전파와 동물 학대를 연유로 실내 체험동물원의 확산을 규탄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대형 실외동물원에서도 동물들의 생활 면적을 보장해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내인데다 심지어 ‘체험형’의 형태를 띤 동물원은 현재까지도 여러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를 야기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동물원 110곳 가운데 면적이 1만㎡ 이상인 ‘대형 동물원’은 23곳에 그치며, 1천㎡ 미만인 ‘소형 동물원’은 47곳이나 된다. 게다가 민간동물원(90%) 중 실내동물원은 51.2%(46곳)이나 존재한다고 한다. 덧붙여 환경부는 “동물원 규모는 작아지고, 야외에서 살내로, 관람형에서 체험형으로 변형되고 있다”면서 “사육환경과 동물관리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이에 동물해방을 결 등 동물권단체들은 “자연적 요소와 완전히 단절된 밀폐 공간, 생태적 습성과는 무관한 사육장에서 수십 종, 수백 마리의 야생동물을 집약적으로 사육하는 실내체험동물원에서 동물들은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스카이데일리]

실제로 실내 체험동물원에서는 일명 ‘교감 도구’라는 막대를 활용해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동물을 쓰다듬거나 모이를 손에 넣고 새들이 풀려오게끔 하기도 한다. 여기서 모이나 먹이는 자판기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별도 안내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먹이공급 방식이나 분량이 적절하지 확인이 어렵다. [출처: 노컷뉴스] 이에 동물원 측에서는 과한 배급을 방지하고자 ‘동물의 건강을 위해 교감은 한 번씩만’이라고 표기해놓았다. 그러나 관람객 입장에서는 단 ‘한 번’ 일지라도 동물들에게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기에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동물이 스트레스로 인해 일정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인 정형행동을 목격하기도 했다.

동물의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선에서도 염려되는 점들이 있다. 명확한 검역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물들의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인수공통전염병에서 자유롭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내동물원은 특성상 스트레스가 유발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동물들의 공격성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목 중인 동물의 경우 방문객들과의 일정 거리조차 없어 안전사고 예방 대처가 다소 미흡해 보인다.



▲ 사진출처 : 비즈한국

올해 어린이날 주간에도 동물원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았다. 취재부가 어린이대공원에 방문했을 때도 수많은 인파로 인해 동물이 전시된 공간 앞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동물원에서는 다양한 종의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고, 직접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어 보며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는 아이들이 동물의 생태를

관찰하고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물원에 나들이 겸 방문하고는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봤듯 동물원의 실상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람들이 동물원에 방문하는 이유인 ‘다양한 종의 동물’, ‘동물과의 직접적인 교감’이라는 장점이 동물들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실내동물원은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종 동물들을 사육해야 하는 특성상 동물들의 습성에 맞는 기본적인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동물 복지가 좋다고 평가되는 대형 동물원도 예버랜드와 서울대공원, 안성팜랜드를 제외하면 동물 1마리당 공간이 3.7㎡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동물과의 접촉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동물들의

정형행동을 유발한다.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14일부터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되고 먹이주기 체험과 동물 공연이 중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법적 차원의 조치와 별개로, 동물을 인간의 오락과 유희거리로 삼지 않는 시민의식 변화가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주간칼럼

지역축제와 대학축제

주간 방미영 교수

지난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지역에서 축제가 열렸다. 모처럼의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필자도 축제 현장을 찾았다. 축제 전문가들과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함이었다. 필자가 방문한 축제 현장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부안마실축제'였다.

'부안마실축제'는 올해 열 번째 열리는 전라북도 부안군의 지역 대표 축제이다. 부안의 수호 전설로 내려오는 개양할미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축제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가고 있다. 개양할미는 바다를 관여하는 신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개양할미를 모신 부안군 죽막동 수성당은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되어 있다. 부안군 죽막동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개양할미에 대한 마을 제의(祭儀)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복원하여 축제의 콘셉트로 구축하고, 올해 열 번째 축제를 개최하였다. 과거에는 무녀를 중심으로 제의를 지내던 개양할미 스토리는 '부안군마실축제'를 계기로 죽막동 마을 사람들이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험함을 전하면서 축제의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다.

축제 전문가들은 당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안마실축제'를 참관하면서 몇 가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첫 번째는 야외 행사로 열린 축제장이 우천 시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너무나 많은 비로 인해 빗으로 만든 조형물들이 유명무실해졌고, 꽃밭놀이 또한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이

어지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개막식 식순에서 지역 인사들의 인사말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되어 우천 속에서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불편뿐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는 '부안마실축제'만의 상황이 아니며 모든 축제와 행사에서 기관장과 단체장 등 주요 인사의 인사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마을주민들이 운영한 먹거리 부스는 지역 대표 음식을 선보이지 못하고 대중소이한 음식과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 무엇보다 우선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다. 네 번째는 축제 행사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부재다. 축제 개최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다. 관광상품은 지역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재구매를 유도하기에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부안마실축제'에서 관광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아쉽게 발길을 돌렸다.

최근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노마스크로 전환되면서 지역축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전국적으로 내린 봄비에 꽃축제는 빗꽃 없는 꽃축제로 열려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석촌호수꽃축제는 행사 전날 축제 이름에서 빗꽃을 빼고 열었다. 대전 동구의 꽃축제도 "중요한 건 겪었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라는 캣츠 플레이로 축제 명을 변경하여 축제를 열었다. 빗꽃이 없는 축제 홍보를 위해 축제 관계자들이 직접 빗꽃 모양의 머리띠를 두르고

홍보에 나서는 재치를 발휘하여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유쾌한 홍보, 재미있는 홍보라는 반응으로 빗꽃 없어도 빗꽃축제를 하는 대전의 축제를 응원하였다. 역발상으로 개최한 축제로 홍보 효과를 단단히 누리 셈이다.

필자는 '부안마실축제'를 참관하면서 평소 대학축제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대학축제는 왜 열리는가? 대학축제는 무엇을 홍보하는가? 대학축제는 왜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는가? 대학축제는 왜 그동안의 리그로 끝나는가? 우리 서경대의 대학축제가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축제의 혁신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생각만으로도 벌써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다.

【기자논】 '주취 감형'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작은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후유증이 지속된다는 것은 지명할 일이다. 한 번이라도 교통사고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다. 몸이 아픈 와중에 이뤄지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은 아픈 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운명이 으스스해질 정도로 크게 난 교통사고는 감히 상상도 못할 지경이다.

그런데 조심조심 운전해도 모자랄 판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있다. 술에 한 입이라도 대면,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과, 음주운전 사고로 또다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다.

전날 8일, 대남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60대 방모 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여 길을 걷던 초등생 4명을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인해 배상액이 9억 5천만 원에 달한다. 현장에 있던

다른 아이들 역시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돌았다. 특히 방 씨는 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방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전에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피고인 방 씨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는 배상액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이 발걸음이 이어졌다. 배 양의 유족들은 "술을 버려야 할 일이다"면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에서 한 뉴스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한 소식이 있었다. 지난 3월 21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A씨가

플랜 차량에 60대 B씨가 치어 승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60대 B씨는 다름 아닌 운전자 40대 A씨의 친모로 밝혀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어머니 B씨 집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낸 딸 A씨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어머니를 영영 볼 수 없게 됐다.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인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서 어머니를 사망하게 했다.

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참한 일인가. 자신이 직접 운전한 차로 어머니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음창호법', '민식이법'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지

만 여전히 치명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재발률도 높아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미디어에 등장하는 연예인의 음주운전 또한 경각심을 낮추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김세연(23)과 가수 신화 멤버 신혜성(44, 본명 정필교)이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세연과 신혜성은 KBS가 출연 정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향후 KBS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연예인들은 계속해서 출연하며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아무 일도 없던 양 뻔뻔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을 보면 '주취 감형'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와닿는다.

술을 마시면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오히려 감형한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닌가? 이해되지 않는 처사다. 자신의 이익

혹은 불이익을 따질 때는 한사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던 걸 보면, 주취 감형은 정말 낫바귀를 쫓아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정부는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할 것이라고 전달 19일 밝혔다. 과연 특별 단속으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해 합당한 처벌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음주운전 사고, 아직도 듣고 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난다. 아무리 음주운전 사고 보도 뉴스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뉴스가 쏟아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일반백계가 필요한 때가 아닌지 묻고 싶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만/파/식/적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

필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마치 자로 잰 듯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계산적이라며 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인생살이 24년 차, 내가 터득한 인간관계의 노하우다.

지난 5월 초,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꽃이 들려오는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필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이 어버이날이었다. 사실은, 학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문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버이날조차 챙기지 못한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게 나와 관련된 일이었다면 온 힘을 다해 챙겼을 텐데 말이다. 복잡한 머릿속과 함께 느지닥이 들 어간 집은 여느 날과 다를 게 없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시던 부모님, 일찍이 주무시던 할머니, 방에서 쉬고 있는 언니들까지.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엄마, 아빠, 할머니 미안해 꽃 한송이도 못 사 왔네" 말해야지 결심했던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말이다. 그저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주위만 서성거렸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떤 필자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학교 다녀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씻고 자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러한 순간에도 오직 내 생각뿐인 부모님이었다. 그들도 분명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더 좌송해지고 말았다.

반성과 자책으로 가득 찬 어버이날이 지나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어버이날에 뭐해 드렸어?'라고 물어오는 친구들의 물음에는 멍쩍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지, 어떻게 바램 없는 마음으로 애정을 주는지, 늘 계산적으로만 사랑을 대했던 자신에 대해 반성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예속고 발버둥 쳤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다. "내가 훗날 부모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바램 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물음이 가득 찼다. 세상에 늘 당연한 건 없다고 배웠는데, 부모의 사랑은 늘 당연했고 조건이 없었다. 사실 지금도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는 물음에 자신 있게 "Yes!"라 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다.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계산기처럼 딱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계산하지 않고 조금씩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보려 한다. 지난 20년간 아낌 없이 사랑을 준 필자의 부모님처럼 말이다. 깨달음과 후회스러움이 가득했던 어버이날이 그렇게 지나갔다.

이예은 기자 (ksosy@naver.com)

【기자논】 '종이빨대' 정말 환경을 위한 것일까?

얼마 전 편의점에서 카프리카를 음료수를 구매했는데, 카프리카의 빨대가 기존의 플라스틱에서 종이빨대로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종이빨대는 비닐 포장지를 풀 수 없었고 밀봉한 종이빨대는 비닐 수박에 없었으며 결국 구매한 음료수도 마실 수 없었다.

이처럼 종이빨대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위의 사례 말고도 많은 카페에서 제공되는 종이빨대는 음료의 맛을 좋지 않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져 음료를 마시는 데 불편까지 느끼게 한다. 소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이빨대가 정말 환경보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스티어스, 맥도날드 등의 글로벌 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이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빨대로 대체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생산하는데 5분, 소비하는데 20분, 썩는 데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플라스틱 빨대의 소비를 지양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종이빨대로 채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분해

가 쉽고, 폐기화할 수 있으며, 저렴하다. 또한 플라스틱보다 유연한 재질인 종이 빨대는 해양 동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적다. 하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종이빨대 사용은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린워싱이란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 캠페인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지식백과]

이런 보여주기식 환경보호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 빨대 사용에 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종

이빨대 외에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친환경 빨대 개발이진 했지만 쉽게 부러지거나 음료와 닿으면 녹는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빨대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빨대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 규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김예진 수습기자 (keumj7276@naver.com)

사설

자조적으로 거지를 자처하는 절약모임 '거지방'

"저를 운반해준 어른에게 감사의 인사로 3800원 드렸습니다" - "택시 타셨군요, 두 발로 걸으세요"

언뜻 보기엔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화는,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거지방'의 내용 중 일부다. 익명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거지방에서는 자신의 목표지출 금액이나 한 달 예산 등을 프로필로 설정해 채팅에 참여한다. 채팅에서는 일상 속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예상되는 소비 품목에 대해 허락을 구하거나 평가를 받는다. 음료 하나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일상스러운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거지방, 진지하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조언을 주고받기도 한다.

과거에는 'YOLO(You Only Live Once)', '플렉스(Flex)', '소확행(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의 용어가 유행하며 현재 자신의 행복을 증시해 소비하던 문화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통이 현실이 지속되며 달라진 소비문화가 보여주고 있다. 거지방 외에도 '냉장고 파먹기', '무지출 챌린지', '팬테크(팬+테크)'가 유행한 것이 그 예시다.

연립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거지방은 고통가로 지갑이 얹어진 젊은이들에게 놀이방이자 심터 역할을 한다"며 "서로 연대,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힘든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해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취지의 놀이문화"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거지방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제치 있는 답변과 절약 팁을 공유하며 주목되기 때문에, 절약하는 행위를 단순히 '공상'으로 보지 않게끔 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본다.

반면 거지방에서의 특정 내용으로 인해 비판의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부모님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본가에서 차려준 밥을 먹으며 지출 0원이라고 뿌듯해하면서, 자신들을 '거지'라고 칭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이었다. 거지방이 자조적인 특성을 띄게 단순한 유머의 말이었지만, 일명 '엽가 찬스'조차 불가능한 저소득층에서는 그야말로 도둑맞은 가난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은희 교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거지방을 통해 위화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바람직한 소통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가볍게 접근하더라도 오가는 말들에 진정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거지방'이라는 표현 자체에 담긴 프레임은 우려해 채팅방 이름을 '절약방'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 조언을 나누며 절약 정신을 기르는 것은 발전을 위한 뜻있는 노력이다. 그러나 가난을 조롱거리로 삼는 순간,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혐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가벼운 농담으로 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준은 기자 (20eun00@naver.com)

【수습논】 MBTI를 통한 '다름'의 이해

요즘 첫 만남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는 "mbti 뭐예요?"일 것이다.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mbti는 영문자 단 4개로 타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맺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맘'들로 성격을 재밌게 나타내어 각 유형 보유자들끼리의 연대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mbti가 유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mbti는 미국에서 1944년 개발된 자기 보고형 성격 유형 검사로, 한국 맞춤형으로 들어온 지는 수십 년

이 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mbti 열풍이 분 시점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즈음부터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성격 유형 검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타인에게 나를 표현하는 도구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필자 또한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던 2020년에 처음 mbti 검사를 해 보았던 기억이 난다.

mbti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타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필자의 경우, 과거에는 타인이나와 안 맞는다고 느끼면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다. 하지만 mbti를 알게 된 이후 타인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대화하면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계를 맺는 데 좀 더 수월해졌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나온 성격 유형의 특성을 통해 타인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mbti의 장점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mbti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통점을 공유하며 연대를 쌓을 수 있다. 같은 mbti를 가진 사람을 발견

하면 나도 모르게 반가운 느낌이 들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진다. 같은 유형이 아니라라도 겹치는 선호도가 있을 경우, 과거의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나 '과몰입'은 금물이다. mbti는 자기 주도형 성격 검사이기 때문에, 실제 나의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검사를 하는 당시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심리학 전문가들도 mbti는 과학적 근거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맹신하

기보다는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나를 표현하는 '자기 PR'이 중요해진 시대에서 mbti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다.

그러나 검사 결과로 나의 가능성을 속단해선 안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단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편견이나 재단 없이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mbti를 사용한다면, 비로소 좋은 의미를 갖는다.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이달의 책

현재의 나를 만든 어린 시절의 나는 어땠는가 - 모두 다른 아버지 이주란



요.”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며 자라 온 탓인지 자신을 담은 딸을 어떻게 사랑하며 키워야 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딸에게 미운 감정이 들기도 한다. 결국, 윤희는 딸을 혼자 두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로 한다. 윤희는 그 순간에도, 한밤중 술을 먹는 불량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철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부터 어떤 것에 몰입한 적도, 장난스럽게 웃은 적도 없었으니까.” 어린 시절 무언가에 미치도록 열중한 적이 있었는지, 행복하게 웃은 적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지만 외로운 걸쭉한 증폭될 뿐이다. 부모에 대한 결핍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결말이 어린 시절 부모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 그 영향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끝없이 미워했던 윤희도, 엄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눈치를 봐야했던 어린 윤희의 딸도 안타깝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어릴 때의 주변 환경이 아이들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영향이 자식의 인생을 괴롭히고 또 후손에게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는 사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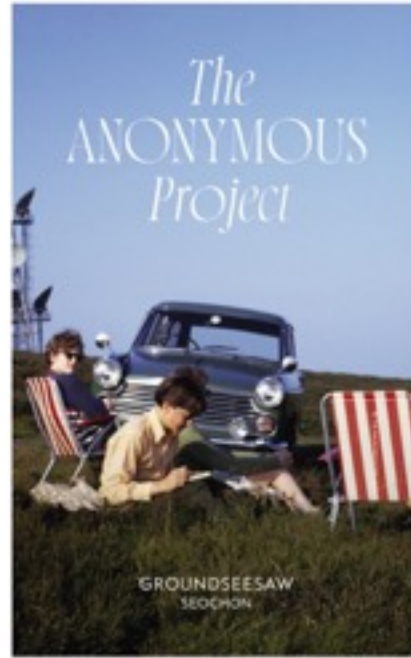
크고 작은 어린 시절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본 적이 있다. 어릴 때 정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셨다고 한다. 어른이 된 지금 그 장난감을 시리즈별로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어릴 때의 그 마음은 해소되지 않는 것 같다는 글이었다. 남들에게는 사소한 장난감으로 보일지 몰라도 어릴 때 갖게 되는 결핍은 그 사람에게 평생 남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됐다.

이주란 작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낙담과 자학이 섞인 농담으로 풀어내 2012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을 받았다. 버스를 타고 가면 보이는 도시 외곽의 달동네에서 사는 한 여자에 대해 상상해 보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작가는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를 살아가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지금의 '나'도 시간이 흘러 다시 되돌아왔을 때 나의 어린 시절이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도록 나의 어린 시절의 결핍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일깨워야 할 것이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130@skuniv.ac.kr)

이달의 전시회

어김없이 들여다보는 어린 시절 -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우리가 멈춰섰던 순간들



먼저 쌓인 앨범을 들춰 보면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가지런히 정렬된 게 보인다. 사진 속 어린 내가 훌쩍 자란 나를 반기고 있는 것만 같다. 어린 시절 추억을 도란도란 나누다 보면 마음이 절로 따뜻해진다. 이 소중한 아련한 경험을 전시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우리가 멈춰섰던 순간들'에서 선사한다.

어노니머스 프로젝트(The Anonymous Project)는 디렉터 리 술만이 수집한 1940-80년대 중심의 컬러 슬라이드 필름 80만 장을 한데 모은 전시다. 리 술만은 영상 디렉터, 아티스트이자 컬렉터로 영국과 프랑스에 오가며 광고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그는 국제 예술계에서 열정적인

전시 큐레이터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시에서 그가 수집해 선보이는 사진들은 주로 코닥로 찍은 필름으로 촬영했다. 코닥로 찍은 1935년에 등장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필름이다. 코닥로 찍은 감색법을 사용한 최초의 외형 발색식 컬러 포지티브 필름이었다. 빛을 그대로 기록한 후 현상 과정에서 색을 넣어 필름 자체가 발색됨으로써 컬러가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 프로젝트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독특한 아마추어 사진 컬렉션'으로 평가받으며 있고 있었던 어린 시절을 일깨워준다. 보편적인 일상이 담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 사진 속 피사체와 공감하게 된다. 전시는 크게 'A Story Begins', 'Before the Instagram Era', 그리고 'The Moments We Paused'를 테마로 삼았다.

이들 모를 사람들의 사진이지만 보다 보면 자연히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사진에는 촬영자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다.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뭉클하다. 마지막 전시 공간에 적힌 “어쩌면 사진은 인류가 개발한 기술 중 가장 다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문구는 감동을 더하고

있었다.

전시를 둘러보고 나니 전시 정보가 눈에 띄었다. 기재된 이름을 전부 'Anonymous'와 숫자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전시 공간 기획에 감탄하면서 관람한지라 익명으로 처리된 것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주제를 생각해 보면, 전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된 것은 오히려 긴 여운을 남겼다.

충구 계단을 내려오면 전시 굿즈를 판매하는 공간으로 이어진다. 엽서, 사진, 스티커, 그림책,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굿즈가 마련되어 있다. 오직 이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굿즈가 놓여 있어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겨 웰테니 조심하자.

인기 있는 전시라 평일 오후에도 전시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느릿느릿 사진을 구경하고 싶다면 꼭 평일에 전시장을 방문하기를 권한다. 또한 주차 공간이 따로 없기에 도보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전시를 보고 난 다음, 인근 길을 걸어 다니다가 걸음을 멈춰 서게 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건 어떨까? 그 순간 역시 어김없이 들여다볼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송민경 기자
(@dawn012@skuniv.ac.kr)

이달의 영화

소중한 추억 속으로 - 토이 스토리 (1995)



것이다. 인간들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장난감들을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의 생일 파티에서 앤디는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로 받는다. 짝꿍이 됐다는 날개와 레이저 디지털 음성을 가진 최신 액션 인형 버즈가 나타나자 앤디는 위태해지기 시작한다. 밤을 먹고 잠을 자는 앤디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앤디의 자리는 어느새 버즈가 차지한 것이다. 버즈의 유쾌한 매력 덕분에 다른 장난감들 사이에서도 버즈의 인기는 높아져만 간다. 이에 앤디는 큰 상실감에 빠져 버즈를 없애 계획을 세운다. 앤디는 버즈를 책상 밑으로 떨어뜨려 버즈를 구해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버즈를 구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고 다시 앤디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투하는 과정 속에서 둘은 가까워진다. 앤디와 버즈는 목숨을 건 모

험을 통해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배우게 된다. 앤디와 버즈는 결국 앤디의 결의로 무사히 돌아가면서 영화는 끝난다.

누구나 어릴 적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장난감과 함께한 추억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저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은 서서히 잊혀진다. 영화는 장난감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 그들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상상 속의 세계를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있고 있던 공간 같은 순간을 선사하는 것이다. 영화 '토이 스토리'는 어린이만 보는 단순한 볼거리라는 예나메이션의 편견을 깨고 어른의 마음까지도 흔든다. 구석에 방치해둔 인형들은 잘 있는지 혹시 움직이지는 않을까 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 5월에는 토이 스토리와 함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동심을 즐기고 오는 건 어떨까?

한채린 수습기자
(hanchaerin@skuniv.ac.kr)

이달의 음악

힘이 되어주는 그 시절의 기억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 가장 짙게 남는 감정은 그리움일 것이다. 그리움이나 아쉬움은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현재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 시절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세 곡을 골라봤다



♪ 〈풍선〉 - 다섯손가락

“왜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게 될까
조그맣던 아이 시절을
때로는 나도 그냥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어
있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가득 싣고”

어린 시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곡 '풍선'이다. 어릴 적 누구나 큰 꿈을 가지 봤을 것이다. 어른이 된 지금은 물질적인 풍요 또는 현실적인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을 나는 것, 우주여행을 가는 것 등을 꿈꾸기도 한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현실에서 벗어나 그 시절의 순수함을 환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



♪ 〈RE : 나에게 (Duet With 김성규)〉 - 윤상

“이 노략 부르고 있을
어느 날의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가장 어두웠던 날도
너의 하루는 너무도 소중한다고
지금 다 모른다 해도
너는 결코 조금도 늦지 않다고”

과거에는 하염없이 크게 느껴졌던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었던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성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이 또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이 노래가 큰 힘이 될 것이다.

김예진 수습기자
(keumj727@naver.com)



♪ 〈걱정말아요 그대〉 - 이적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노래는 어린 시절 추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 말이 후회가 남는 과거에 대한 커다란 위로를 준다. 만약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과거의 일이 있다면 그것대로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현재에 더욱 집중해 보자.

김예진 수습기자
(keumj727@naver.com)

이달의 장소

우리가 모르는 이들의 어린 시절을 찾아서 - 돈의문 박물관 마을



달하리 시리즈나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어른의 어린 시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다. 근현대 서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2003년 '돈의문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5년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성 계획이 변경됐다.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닌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방식을 선택하여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이에 따라 '돈의문 뉴타운' 지역은 서울이 지나온 100년의 이야기를 전시, 공연, 교육, 모임을 통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다양한 볼거리 덕분에 세대를 아우르며 세대 간 소통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장소로도 자리잡았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마을 전시관과 한옥 체험관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마을 전시

관에는 옛날 여관이나 사진관, 하숙집, 다방 등의 건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건물들은 지금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 시절만의 정취를 간직한 채로 보존됐다. 한옥 체험관에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한옥 마을이 재현되어 있다.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한지공예, 매듭공예 등 다양한 체험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체험 외에도 상상 전시 및 기획 전시도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예약을 통해 평일 목요일, 금요일과 주말에는 도슨트와 함께하는 투어도 경험 가능하다.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이 가득한 돈의문 박물관 마을은 무료입장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월요일만 휴관하니 가족들과 대화거리를 만들고 싶거나, 간단히 놀러 갔다 올 공간이 필요한 학부모에게 방문하길 권한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409@naver.com)

이달의 스포츠

대한축구협회의 '사면' 초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3월 28일 한국과 우루과이의 대표팀 평가전을 앞두고 축구인 100명의 긴급 사면 조치를 의결했다. 사면 대상자는 승부조작과 같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들과 지도자, 심판, 그리고 구단 단체 임원 등이다. 협회가 불연 사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협회는 오랜 기간 지속하며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지만, 협회의 이러한 결정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승부조작은 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뿐 아니라 페어플레이를 지향하는 '스포츠 정신'을 훼손시키는 비위 행위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의결안을

발표한 것은 협회의 비신사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남은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앞두고 있어,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축구 대표팀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는 SNS를 통해 '기습적으로 의결한 사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전면 철화를 요구했다. 이어 '사면에 강행할 시 K리그 클럽 서포터즈와 연계한

리그 경기 보이콧·항의 집회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행동할 것'이라고 성명을 낸 상태다. 협회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면 의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지만, 비난을 잠재우진 못했다. 결국 31일 재심의 불통해 사면을 철회했다.

사면 철회에도 협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계속 이어지자 '꼼수 사면'에 가장 책임이 큰 이사회 구성원들이

사퇴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인 이영표, 이종국 부회장, 조원희 사회공헌위원장까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축구를 좋아하고 K리그를 아끼는 팬으로서 이번 사면 논란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체사다. 사태가 커지면서 사면은 철회 됐지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모았듯 분명 긍정적인 행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를 잘 유지하길 바란다. 흥행의 붐을 견고하고 있는 K리그에 잠시 비가 내렸다면, 이 비를 거름 삼아 K리그도, 대한 축구 협회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윤정현 수습기자
(tony0435@naver.com)